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9학년도 모의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도덕>, <생활과 윤리>,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과학기술과 윤리, 시민사회와 윤리, 과학적 시민권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원자력위원회 당신은 원자탄의 아버지라고 불리지요? 당신은 그것을 결국 일본에 투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펜하이머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위원회 아니라고요?

오펜하이머 히로시마의 원자탄 투하는 엄연히 정치적 결정이지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원자력위원회 그렇지만 당신은 목표지들을 선별하는 데 협조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펜하이머 나는 맡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가능한 목표지의 목록을 받아 검토했지요.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교토... 우리의 실험 경험에 비추어 어떤 목표지가 원자탄 투하에 가장 적합할지, 전문가로서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점화의 고도를 정하고 목표지들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원자력위원회 어떤 특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나요?

오펜하이머 우리의 실험에 따르면, 지면은 적어도 직경 2마일은 되어야 했고 가능한 한 목조 건축물이 운집되어야 했습니다. 기압과 그에 뒤따르는 불길 때문에 말이지요. 또 원자탄의 효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 폭격이 없었던 곳이어야 했지요. 우리는 목표지 선정을 위한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폭탄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오로지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폭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물리학자였을 뿐 군인도 정치가도 아닙니다. 핵물리학이 곧 원자탄은 아닙니다. 핵에너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 반대 방향의 활용만을 생각했습니다.

원자력위원회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오펜하이머 정부들이지요. 세계는 새로운 발견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돌쩌귀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걸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세계는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중략)

원자력위원회 당신은 수소탄에 대해서 한 번도 도덕적 가책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텔러 없습니다. 어떤 발견에 내포된 결과, 즉 활용의 가능성은 나로서는 예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자력위원회 수소탄의 활용 가능성을 전혀 예견할 수 없다는 겁니까?

텔러 없습니다. 긍정적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사용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의 원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장 값싸고 강력한 에너지가 20년 뒤나 30년 뒤 이 지구의 얼굴을 쾌적하게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독일에서 하안 박사가 우라늄을 최초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을 때만 해도 그는 방출된 에너지가 폭발 목적으로 사용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발견이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도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며, 그저 사실일 뿐이지요.

* **오펜하이머(J. Robert Oppenheimer)** : 미국의 물리학자. 2차 세계대전 중 로스 알라모스 원자무기연구소 소장으로 여러 학자들과 함께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맨해튼 계획을 수행했다.

** **텔러(Edward Teller)** : 미국의 물리학자.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2차 세계대전 중 맨해튼 계획에 참여했으며,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에 이어 핵융합을 이용하는 수소폭탄 연구를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핵개발을 지지했다.

<나>

서구에서는 1930년대 들어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이 처음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과학을 가치중립적인 활동으로 파악하며 그 올바른 사용에 관해서만 논의했다. 즉 이들은 과학은 그 자체로서는 선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선하게도 혹은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1945년 원자탄 투하 이후 변하게 되었는데, 과학자들은 과학 연구와 연구 결과의 사용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며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화학비료의 사용과 토양의 파괴, 원자력 발전에 따른 대기 중 방사능 농도의 증가, 냉전 시대의 경쟁적 우주 개발, 베트남전을 비롯한 여러 전쟁에서 사용된 전쟁 기술들과 생화학 무기들의 문제, 유전공학의 위험성 등이 제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는 응용에서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문제는 소수의 과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윤리 의식을 과학 연구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하고, 과학적 결과의 사용에 대한 정책은 정치가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과학자들의 경우는 이 책임이 더 막중하다. 과학자가 속한 실험실과 과학자 사회는 모두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시민 사회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 윤리 역시 자신의 과학 활동이 우리의 시민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또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지한 윤리적 고찰에 기초할 때에만 튼튼한 뿌리를 갖는다. 과학 연구는 사회적 활동이므로, 더 넓은 시민 사회의 윤리적 규범과 연관될 때에야 온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유전공학의 여명기인 1974년, 버클리 대학의 교수인 폴 버그를 중심으로 분자생물학자들이 유전자 재조합 연구의 자발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재조합 DNA 분자들의 잠재적인 생물학적 위험성'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성명서는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눈에 띄는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유전자 재조합 실험들을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다. 정치적·경제적 권력들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제다.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150여 국가의 정부가 '국제 생명 안정성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의정서는 과학기술에 '심각한 위해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나 합의 부재가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영국의 생물학자 매완 호 교수의 '사전 예방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정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역시 정치적·경제적 권력들 때문이다.

오늘날 각국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살아 있는 유기체, 세포주, 유전자에 특허를 주고 있으며, 유전체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같이 고비용을 전제로 하는 '거대과학'의 시대에는 과학자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제가 결의된다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언급한 '문명의 자기파괴 잠재력'을 안고 있는 '위험사회'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낙관적 기대만을 간직한 채 다가오는 위험을 마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 극작가 뒤렌마트는 희곡 <물리학자들>의 말미에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해법을 밝혔다. "물리학의 내용은 물리학자들과 관계되지만, 그 영향력은 모든 인간에게 관계된다. 모두에게 관계되는 일은 오로지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옳은 생각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생각을 '시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 또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말로 표현한다. 일례로 유럽에서는 '합의 회의'라는 시민 참여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과학기술들에 대해서는 그 기술의 '수혜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치나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시민권을 과학기술 분야에까지 확대했다는 뜻에서 이 권리를 '과학적 시민권'이라 부른다.

1. <가>의 과학자의 태도를 <나>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나>와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1000±100자)

3.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H. Kipphardt, 차경아 번역, <J. 로버트 오펜하이머 사건에서>, 두레, 1989. pp.239-242, pp.327-328.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가>는 1954년 5월에 있었던 미국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에 대한 원자력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록극이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와 텔러는 과학적 연구란 가치중립적인 것이며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핵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사용될지 혹은 전쟁과 파괴를 위해 사용될지를 정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며 과학자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 : 홍성욱, <연구 윤리의 사회적 맥락>, 『과학 윤리 특강』, 사이언스북스, 2011. pp.81-85.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나>는 과학 연구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지는 반면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오늘날, 과학자가 가져야 할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말한다. 과학적 결과의 사용이나 이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정치가들의 몫일 뿐 과학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비판하면서, 과학자의 윤리란 과학 연구의 영역에만 한정될 수 없으며 사회의 변화와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는 더 넓은 시민 사회의 윤리적 규범과 연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다> : <시민이 참여하는 ‘과학 통제’ 유효할까 - 김용규의 문학 속 철학 산책>, 『한겨레신문』, 2007-11-09.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다>는 오늘날과 같이 과학 연구가 국가나 기업의 전폭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는 설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정치적·경제적 권력 개입으로 인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과학자들의 윤리 선언도, 또 정부 간의 협약도 ‘거대과학’의 시대에는 모두 무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연구 및 관련 정책의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과학적 연구가 가치중립적이라는 고전적인 주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문의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과학자의 사회 윤리적 측면과 과학적 시민권의 측면에서 각각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고안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살고 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핵전쟁, 환경오염, 유전공학의 위험성 등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가능성도 현존한다. 과학 연구와 개발은 정치·사회적인 문제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다. 때문에 과학자와 시민 모두 과학 기술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것의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나 개발의 결과가 사회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연구와 그 활용에 관하여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또 시민들은 과학 기술이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과 관련된 토론과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최고 의사 결정자인 시민은 과학 기술 개발의 투자자이자 과학 기술의 생산자이기도 하며, 또한 과학 기술의 적용으로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따라서 시민도 과학 기술의 문제에 대하여 숙고하고 그것의 영향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과학 정책의 결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 문항은 과학기술의 시대에 갖추어야 할 과학자의 윤리와 시민 사회의 책임을 잘 이해하고, 그 관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7]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도덕	
	성취기준 1	<p>(4)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p> <p>(ㄷ) 과학 기술과 도덕</p> <p>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 기술의 가치와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과학자의 도덕적 책임 문제를 인식하며, 과학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 기술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p> <p>①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끼친 영향</p> <p>② 과학 기술과 과학자의 가치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인식</p>
	관련	제시문 (가), (나)
관련 성취기준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성취기준 1	<p>(4) 환경 변화와 인간</p> <p>(가)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p> <p>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삶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를 이해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일상 공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한다.</p> <p>①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며, 비판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과학 기술을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파악한다.</p>
	관련	제시문 (다), 문제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J. 로버트 오펜하이머 사건에서”	H. Kipphardt 차경아 번역	두레	1989	pp.239-242, pp.327-328.	제시문 (가)	발췌 후 재구성
“연구 윤리의 사회적 맥락” (『과학 윤리 특강』 중)	홍성욱	사이언스 북스	2011	pp. 81-85	제시문 (나)	발췌 후 재구성
“시민이 참여하는 ‘과학 통제’ 유효할까 - 김용규의 문학 속 철학 산책”	김용규	한겨레신 문	2007		제시문 (다)	발췌 후 재구성

6. 문항 해설

■ 논제의 구성

논제는 과학 연구의 가치중립성을 주장하는 <가>의 입장을 <나>의 논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나>와 시민의 과학 정책 참여를 주장하는 <다>의 논지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늘날의 사회에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제는 다음의 요구로 구성되어 있다.

- ① <가>의 주장을 요약하고 <나>의 논지에 근거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 ② <나>와 <다>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 종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① <가> 제시문에 등장하는 두 과학자들의 주장이 지니는 공통점을 파악한다.
- ② <나>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를 비판한다.
- ③ <나>와 <다>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한다.
- ④ <나>와 <다>의 논지를 종합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7.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 답안의 구성 요소</p> <p>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p> <p>①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②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③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p> <p>■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① <가> 제시문에 등장하는 두 과학자의 주장을 이해한다. - 과학 연구는 선도 악도 아니며 가치중립적임을 주장한다. - 과학 연구의 결과는 과학자의 몫이 아니며 정치적 결정임을 주장한다.</p> <p>② <나>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한다. - 과학 연구와 결과의 활용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으며 엄밀히 구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윤리를 과학 연구에만 한정하여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 과학 연구는 사회활동이며 과학자 역시 시민사회의 일원이므로, 과학 연구의 활용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과학자의 책임과 윤리를 자각해야 한다.</p>	

③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의 주장을 비판한다.

- 과학 연구는 가치중립적이며 선도 악도 아니라는 <가>의 주장은 과학 연구와 활용이 정치사회적 문제와 서로 얽혀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 과학 연구의 활용과 그 결과는 정치적 문제만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과학자 역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④ <다>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한다.

- 현대과학의 위해성을 통제해 보고자 한 과학자들의 윤리 선언이나 국가 간의 협약은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개입으로 무력화되어 왔다.
- 과학기술의 수혜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⑤ <나>와 <다>를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은 정치·사회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과학자와 시민 모두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학 연구에 국한된 윤리의식이 아니라 연구의 사회적 영향력도 고려하는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 시민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한편,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채점 기준(9등급 평가 기준)

아래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①,②,③,④,⑤를 모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안 서술이 체계적이며 완성도가 높은 경우	1등급
①,②,③,④,⑤를 모두 충족하였지만, 문장서술과 표현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경우	2등급
①,②,③를 모두 충족하고, ④,⑤의 기술이 다소 부족한 경우	3등급
①,②,③를 대체로 기술하였으나 ④,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①,②,③를 부분적으로 기술하였고, ④,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5등급
①,②,③,④,⑤를 대체로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	6등급
①,②,③,④,⑤ 중에서 한 개만 충족하여 답안을 쓴 경우	7등급
구성 요소 대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답안의 완성도에 결함이 있는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사항과 관계없는 글을 썼거나 어법 오류가 상당히 많은 글의 경우	9등급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8. 예시 답안

제시문 <가>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은 과학자의 소임인 과학 연구에 몰두했을 뿐,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학연구는 가치중립적이며, 그 결과의 활용은 정치적 결정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과학 연구와 연구의 결과는 날카롭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과학연구의 결과에 연루될 수밖에 없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과학자도 시민이고, 그 연구는 시민사회의 일부다. 과학적 활동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와 그 윤리적 규범의 형성에는 당연히 과학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과학이 인간과 사회에 초래하는 위해를 통제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의 윤리적 선언이나 국가 간 협약이 추진되었으나, 효과적인 통제는 쉽지 않았다. 이미 정치적, 경제적 권력들이 과학기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며, 이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오늘날 과학은 인간의 삶과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는 가장 효과적인 과학기술 통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그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과학에 대한 시민의 참여권을 '과학적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맹목적인 찬사나 막연한 우려보다는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학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19학년도 모의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 <법과 정치>, <사회 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전체주의, 민주주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중언어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신어(新語)로 진부(眞部 ; Minitrue)라 하는 진리부는 다른 건물들과 모양이 판이하다. 백색의 콘크리트로 번쩍이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은 테라스에서 테라스로 이어져 공중으로 높이 3백 미터나 우람차게 솟아 있었다. 윈스턴이 보고 있는 전면에는 당의 세 가지 슬로건이 멋진 글씨로 붙어 있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오세아니아의 사회는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는 빅브라더는 전지전능하고 당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실상 빅브라더는 전능도 아니고 당은 오류도 있기 때문에 사태의 처리에 있어 끊임없는 임시변통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이 ‘흑백(黑白)’이다. 신어의 많은 단어처럼 이 말도 두 개의 반대 개념을 갖고 있다. 반대편에서 사용될 때는 명백한 흑인데도 백이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습관을 의미하고, 당원이 사용할 때는 당이 요구하면 흑을 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성심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 말은 흑을 백이라고 ‘믿는’ 능력을 의미하며, 더욱이 흑이 백이라고 ‘알고’, 전에 반대로 믿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능력을 뜻한다. 이것은 과거 사실의 끊임없는 변경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다른 모든 것을 망라하는 신어로, ‘이중사고’라는 사고 체계에 의해 가능하다.

역사는 끊임없이 재기록된다. 진리부가 담당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이 계속적인 날조 행위는, 애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억압과 사찰 행위만큼 정권의 안정에 필요한 것이다. ‘평화부(Ministry of Peace)’는 전쟁을, ‘진리부(Ministry of Truth)’는 거짓말을, ‘애정부(Ministry of Love)’는 고문을, ‘풍요부(Ministry of Plenty)’는 아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우연이 아니요, 일반적인 의미의 위선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신중한 ‘이중사고’의 행위 결과이다. 왜냐하면 모순을 조화시킴으로써만 이 권력을 영원히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 『1984년』>

<나>

정치적 담론에 쓰이는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사전적 의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배 세력에게 봉사하는 데 유용한 교시적(敎示的) 의미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살펴보자. 상식적 의미로 보면 사회란 민중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떻게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시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이와 다르다. 그것은 재계 부문과 그에 관계된 엘리트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손꼽히는 민주주의 이론가인 월터 리프먼의 해석에 따르면, 대중은 “구경꾼”이지 “참여자”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인준하고 그들 중의 누군가에게 지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자신들과 직접 상관이 없는 문제인 공공 정책 등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 대중의 일부가 무관심에서 벗어나 여론을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들의 어법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야 하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극복되어야 하는 위협인 것이다.

‘자유기업체제’라는 말을 보자. 이 단어는 실제로는 부유층을 위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대대적으로 개입하는 공공 보조금과 사적 이윤의 체제를 말한다. 그들의 어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말은 모두 그 실제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옳겠다.

‘침략에 대한 방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침략을 의미하는 데 쓰인다. 미국이 남베트남을 침공한 1960년대 초 자유주의적 영웅의 한 사람이었던 애들레이 스티븐슨은 우리가 남베트남을 “내부적 침략”에 맞서 지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내부적 침략이란, 농민들을 남부의 게릴라로부터 “보호”해 준다면서 집에서 쫓아내 강제수용소에 몰아넣었던 미 공군과 미국이 지휘하는 용병 부대에 대한 남베트남 농민들의 침략이었다.

정치적 담론에 쓰이는 용어의 기능은 명백하다. 그것은 인류에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 문제들에 관해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세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다>

최근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성 뉴스, 이미지 중심의 카드 뉴스 등은 기술적 진보에 따른 콘텐츠 유통과 이용 방식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시민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즉 시민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표현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갈등과 혐오의 표현을 여과 없이 전달하여 의견의 극단화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다. 성숙한 시민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타인의 의견과 의사를 존중한다. 또한 자본, 정치, 문화, 교육 등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의와 불법에 저항할 수 있다. 시민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이를 통해 시민 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文解力)] 교육이다. 시민들이 좋은 미디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선택적, 비판적 소비를 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시민 사회가 형성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생산하여 유통하고 있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콘텐츠 생산 과정에 창의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콘텐츠를 바탕으로 타인들과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시민의 미디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성숙한 참여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민주 시민의 필수 역량이며 미디어 생태계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2. <가>와 <나>의 관계를 기술하고, <가>와 <나>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를 근거로 제시하시오. (1000±100자)

3.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조지 오웰, 김병익 옮김, 『1984년』, 문예출판사, 2004, 10~11쪽, 233~234쪽, 238쪽에서 발췌 후 재구성.

<가>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이중사고’를 통해 만든 신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오세아니아 사회에서 빅브라더와 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어’를 만들어낸다.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조작하기 위해 이중사고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화부, 진리부, 애정부, 풍요부 등의 부처가 실제로는 이름과는 반대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당의 슬로건처럼 모순되는 표현은 이중사고를 통해 지배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 : 노암 촘스키, 김보경 옮김,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구속, 무지는 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한울, 1996. 141~146쪽에서 발췌.

<나>는 노암 촘스키의 미국 정치사회를 비판하는 칼럼의 일부이다. 정치적 담론에 쓰이는 용어들은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지배 세력의 유지를 위해 교조적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있다. 그 예로 ‘민주주의’, ‘자유기업체제’, ‘침략에 대한 방위’ 등의 표현이 지닌 이중성을 들 수 있다. 사전적인 의미와 달리, 현대의 민주주의는 민중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서 오히려 민중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로 표현한다. 자유기업체제 또한 부유층을 위한 공공 보조금과 사적 이윤의 체제를 의미하며, ‘침략에 대한 방위’라는 표현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치적 담론에 쓰이는 언어 표현들은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제시문 <다> : 유흥식, “민주시민의 필수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Brunch>, 2018.03. <https://brunch.co.kr/@kpf10/500>

제시문 <다>는 유흥식 칼럼의 일부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다. 미디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 점에서 시민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는 성숙한 시민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권력의 불법과 불의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한다.

4. 출제 의도

문항2의 논술 주제는 지배 권력이 만들어내는 언어표현을 간파하는 시민적 능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도록 고안되었다.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정치적 담론의 이중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 대한 고찰에 출제 의도가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미디어 시대라는 점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콘텐츠들을 통찰력 있게 살펴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더욱 필요로 한다. 특히 지배 권력이 이중사고에 기반한 정치적 수사와 프로파간다를 통해 국민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깨어 있는 시민의 자세가 중요함을 성찰해 보도록 지문을 구성하였다. 즉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시민은 텍스트 너머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자 출제하였다.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	관련	
	성취 기준 3	(18)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추론적 독해를 위해서는 글의 표면적 단서인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문맥을 파악해 나가면서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 광고문이나 정치 담화문, 시사평론(시평, 칼럼) 등에는 필자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글의 의도나 목적, 주제 등을 숨겨 놓을 수 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도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표제, 기사의 위치, 관련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 등을 달리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추론적 독해 능력을 길러 글에 담긴 의도나 숨겨진 주제, 필자의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문 <가>, <나>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법과 정치	관련	
성취 기준 2	(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바람직한 민주 정치의 형태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한다. 또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태도를 모색한다. (㉔) 현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실제 사례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제시문 <다>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문화		관련
성취 기준 3	(6)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역동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 변동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한다. 현대 사회의 중요한 변화 양상인 세계화와 정보화를 이해한다. (a) 정보 사회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탐색한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1984년』	조지 오웰(George Orwell)	문예 출판사	2004	10~11쪽. 233~234쪽. 238쪽.		○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구속, 무지는 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노암 촘스키 (Noam Chomsky)	한울	1996	141~146쪽.		×
「민주시민의 필수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유홍식	Brunch	2018. 03.		https://brunch.co.kr/@kpf10/500	×

6. 문항 해설

■ 논제의 구성

본 논술문항의 주제는 권력과 언어의 문제다.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이해하고 관계를 기술하면 서,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수사의 의도성과 결과를 묻고 있다. <다>를 근거로 <가>와 <나>의 상황에서 지배 권력이 이중언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사고를 통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계열 문항2에서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와 <나>의 관계를 기술하고, <가>와 <나>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를 근거 로 제시하시오. (1000±100자)

논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와 <나>의 관계를 기술하시오.

둘째 <다>를 근거로 <가>와 <나>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가>와 <나>의 핵심 내용과 두 지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둘째 <가>와 <나>의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셋째 <다>의 주장을 파악한 후 <가>, <나>의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하기

7.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 점
	<p>■ 답안 구성 요소</p> <p>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p> <p>첫째 답안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p> <p>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p> <p>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적절한가</p> <p>■ 답안은 다음의 세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p> <p>① <가>의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 ‘신어’의 의미 이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의 세계인 오세아니아에서 사용되는 ‘신어’는 이중사고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 는데, 그 목적은 시민들이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언어는 현상을 정확히 포착하는 의미를 지닌 어휘로 표현될 때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 	

악할 수 있는데,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신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 ‘신어’의 궁극적 목적은 당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② <나>의 주장 이해하기

- 정치적 담화에서 쓰이는 언어는 사전적 의미와 교시적 의미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 미국에서 현재 쓰이는 표현들은 사전적인 의미와는 달리 지배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교조적 목적을 가진 채 사용되고 있다.
- 의도된 정치담론의 유포를 통해 시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③ <가>와 <나>의 관계에서 공통된 문제상황 파악하기

- <가>과 <나>지문에서 보이는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관계를 파악한다.
- 차이점은 <가>는 전지전능한 빅브라더와 당이 지배하는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나>는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 그리고 평화 수호를 우선 가치로 표방하는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가>와 <나>의 공통점은 지배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가>에서 빅브라더와 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사고를 통해 ‘신어’를 만들고, <나>에서 미국도 지배계급들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가>와 <나>의 지배세력은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궁극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언어를 통한 사고의 조작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④ <다>의 핵심 주장인 ‘미디어 리터러시’ 의미 파악하기

- <다>는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교묘히 조장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가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분석적, 비판적으로 읽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⑤ <가>와 <나>의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하기

- <가>와 <나>는 지배세력이 이중적 의미를 지닌 언어를 교묘히 활용하여 시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기득권의 이익을 유지해가는 상황이다.
- <다>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정치적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
-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비판, 이를 분석하면서 활용하는 능력,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우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 채점시 다음과 같은 점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계 분석】

- 두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을 분석하는 능력 측정
- 문항해설 ①,②,③의 해당 부분을 검토
- 예시답안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부분 참조
- Key Word :
제시문 <가> - 신어, 이중사고, 슬로건, 모순, 권력
제시문 <나> - 정치적 담론, 교시적 의미, 민주주의, 참여자, 엘리트, 민중

【제시문 <다>를 근거로 <가>와 <나>의 상황 해결】

- <다>의 핵심을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지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의 논리성과 설득력을 평가
- 문항해설 ④,⑤의 해당 부분을 검토
- 예시답안의 세 번째 단락 부분 참조
- Key Word :
제시문<다> -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사회, 비판적 사고, 문해력 교육

■ 채점 기준(9등급 평가 기준)

아래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①,②,③,④,⑤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안 서술이 체계적이며 완성도가 높은 경우	1등급
①,②,③,④,⑤를 모두 충족하였지만, 문장서술과 표현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경우	2등급
①,②,③를 모두 충족하고, ④,⑤의 기술이 다소 부족한 경우	3등급
①,②,③를 대체로 기술하였으나 ④,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①,②,③를 부분적으로 기술하였고, ④,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5등급
①,②,③,④,⑤를 대체로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	6등급
①,②,③,④,⑤ 중에서 한 개만 충족하여 답안을 쓴 경우	7등급
구성 요소 대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답안의 완성도에 결함이 있는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사항과 관계없는 글을 썼거나 어법 오류가 상당히 많은 글의 경우	9등급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8. 예시 답안

<가>와 <나>는 지배세력이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가>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으로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신어’의 예와 역할을 보여준다. 당의 슬로건과 정부 부처를 표현하는 신어는 정권의 안정에 필요한 이중사고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모순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나>는 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 평화를 우선가치로 표방하는 미국에서 언어 표현과 진실간의 괴리를 비판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중 언어는 지배 권력이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치적 수사의 사례들이다. 즉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어 프레임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어떻게 조작하고 통제하고 있는지를 시사한다.

이처럼 <가>와 <나>의 문제상황은 이중언어가 국민들의 의식의 혼란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지배세력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국민을 위한다는 표현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의도임을 상징한다. 권력의 교시적 언어로서 표면적으로 언급된 의미 외에 이중적으로 숨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선전 언어를 통해 시민들이 정확하게 현실을 해석하지 못하고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가>와 <나>가 직면한 용어의 이중성을 간파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력 있는 시민의식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만들어내는 언론 뉴스나, 홍보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숨은 의미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수사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들을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슬로건과 담론이 만들어내는 지배세력의 이중사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대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